

의사와 사회

김 교 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사람은 누구나 가정과 사회의 도움으로 자라게 된다. 나이가 들고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면 가정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자신을 키워준 사회에 바쁜 시간을 내어 봉사하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도 의사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사회인이고 마음을 먹으면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 달리 자기를 있게 해 준 가정과 사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사회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사 상을 위해서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과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로서 환자와 주위사람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여 보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환자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태도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반감기는 채 5

년이 되지 못한다. 최근 의학정보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의사는 새로운 치료방식에 대한 정보에 항상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수년 전에 배운 고식적인 치료방법 만을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행위는 바로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심지어 환자를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에 대한 열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환자를 완쾌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다른 의사에게 소개하여 고견을 들음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진찰하고 치료약제를 주거나 수술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를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가 맡은 환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병에 대한 학문적 탐구정신이 없으면 환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진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의사의 관심이 환자의 병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환자를 병으로 고통받는 인격체 전체로 대함으로써 병든 장기에 대한 국소적 치료를 넘어서 환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보는 의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불치병의 경우처럼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옆에서 지켜

* 김교순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주고 기도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 정성과 기도만이 절망하는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하여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되기도 한다.

매일 매일 아픈 환자나 죽어 가는 환자를 보면 환자에 대한 의사의 마음이 무디어 질 수도 있게 된다. 처음 의사가 되어 첫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가 쾌유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때 느꼈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슴에 간직한 채 한결같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다스리도록 노력한다.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동료 의료인과 병원 내의 다른 직종 종사자와 함께 서로 도와야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많은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한 말씨를 쓰도록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며 서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태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환자와 이웃,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시각을 넓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어떤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과 봉사를 하여

야 한다. 남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을 내어 시민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리더란 주위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는 사회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인 배려 뿐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사회를 상대로 한 끊임없는 영양관리, 육아, 노화 등 일반인의 건강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십일조를 헌금한다. 불교에서는 이타즉자리(利他卽自利)라는 말이 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꾸준히 행하라는 것으로, 현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만큼 남을 이롭게 하며 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사는 다른 직업보다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하겠다. 한번의 큰돈보다는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적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일정액을 평생동안 종교 봉사단체에 기부하신 분을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많은 돈의 기부도 필요한 일이지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수에 맞게 남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의사와 종교인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가 있

다. 의사는 전문적 진료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남을 돕는다는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고 항상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위사람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통하여 향상의 길로 나

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환자와 주위사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봉사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사명감,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